

— Sat-49 —

Oral Domperidone does not affect the QT interval and QT dispersion in healthy persons.

Jong Ju Lim^{*}, M.D., Kyoung Hee Kweon, M.D., Nam Ho Kim, M.D.,
Byoung Hyun Park, M.D., Chung Gu Cho, M.D.
School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Purpose : Several cases of QT prolongation and ventricular tachyarrhythmia have been reported with domperidone. So We would like to determine the effects of domperidone on the QT interval and on the QT dispersion in healthy persons.

Methods : All 13 persons were given domperidone(Motilium-M) 10mg thrice daily for 1 week. 12-lead ECGs were recorded at 25mm/s on the day before commencing domperidone, after using domperidone. QT, QTc, QTd and QTcd were calculated by single observer.

Results : QT was mild prolonged after domperidone treatment, but it's not significant(368.23 ± 39.74 vs. 378.46 ± 33.41 ms). QTd and QTcd did not changed(51.785 ± 14.806 vs. 49.631 ± 17.752 ms and 59.185 ± 21.968 vs. 61.538 ± 22.475 m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QT parameters during domperidone treatment.

Conclusion : Domperidone, as a commercially usual maximum dose, dose not affect the QT interval and the QT dispersion in healthy persons.

— Sat-50 —

저분자량 헤파린 사용 중 발생한 대퇴부 혈종 2예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대회, 최동욱, 조병렬, 김용훈, 김우진

저분자량 헤파린은 표준 헤파린에 비해 생체활성도가 높고 부작용이 적어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되나 표준 헤파린과 유사하게 출혈의 합병증이 있다. 저자들은 저분자량 헤파린인 enoxaparin 사용 중, 알려진 출혈의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서 구획증후군을 동반한 혈종의 발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 : 79세 여자가 발열과 전신파로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으로 진단하고 경험적 항생제와 astrix 200 mg, enoxaparin 60 mg q 12 hrs 을 투여하였다. 3일째 좌측 둔부에 통증을 동반한 종괴가 발생하면서 병변 하부로 동맥의 맥박소실 및 감각 이상을 동반하였다. 혈액 검사상 내원 시와 비교하여 혈색소 4.9 g/dL의 감소가 있었으나, 혈소판수 및 혈액응고검사는 정상 범위였다. 복부 및 골반 전산화 단층 촬영상 좌측 둔부근으로부터 대퇴모음근에 이르는 혈종이 각각 7.6X4.2 cm과 8.2X4.4 cm크기로 관찰되었고 종축으로 조금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혈종으로 인한 구획증후군 동반으로 진단하여 protamine sulfate 50 mg 투여하고 혈종 제거 수술 및 수혈을 하였다. 환자는 호전되어 퇴원 후 추적관찰 중이다.

증례 2 : 78세 여자가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도염으로 인한 기관지 천식의 급성 악화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던 중, 입원 5일째 심전도 검사상 lead V2-V6에서 T파의 역위 보이고 심장 효소 검사상 TnT 약양성, CK-MB 6.19 ng/mL (0-5.0)로 상승되었다. 비-Q파형 심근경색에 준하여 astrix 200 mg, enoxaparin 50 mg q 12 hrs 투여 하던 중, 투여 6일째 우측 대퇴부 내측에 검푸른색의 색조변화를 동반한 종괴가 발생하였다. 혈액 검사상 내원 시와 비교하여 혈색소 4.6 g/dL의 감소가 있었으나, 혈소판수 및 혈액응고검사는 정상 범위였다. 하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우대퇴부 상내측, 우둔부에 혈종이 10.5X7.5 cm크기로 관찰되었다. 저분자량 헤파린 투여로 인한 혈종으로 생각하여 protamine sulfate 50 mg 정맥 투여 및 수혈을 하였고 추적 관찰 하던 중, 혈종은 호전되었으나 기저질환 악화로 인해 내원 36일째 사망하였다.

고찰 : 저분자량 헤파린은 약동학적으로 안정된 항응고제이나 비만이나 신기능 부전을 동반한 환자에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한다. 두 증례 모두 알려진 출혈 위험인자가 없었으나 혈종이 발생하였고, 1예에서는 구획증후군을 동반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 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시 anti-Xa 활성도 감시와 용량의 증감이 필요하고, 근육의 통증 및 빈혈 등 증상 발생시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